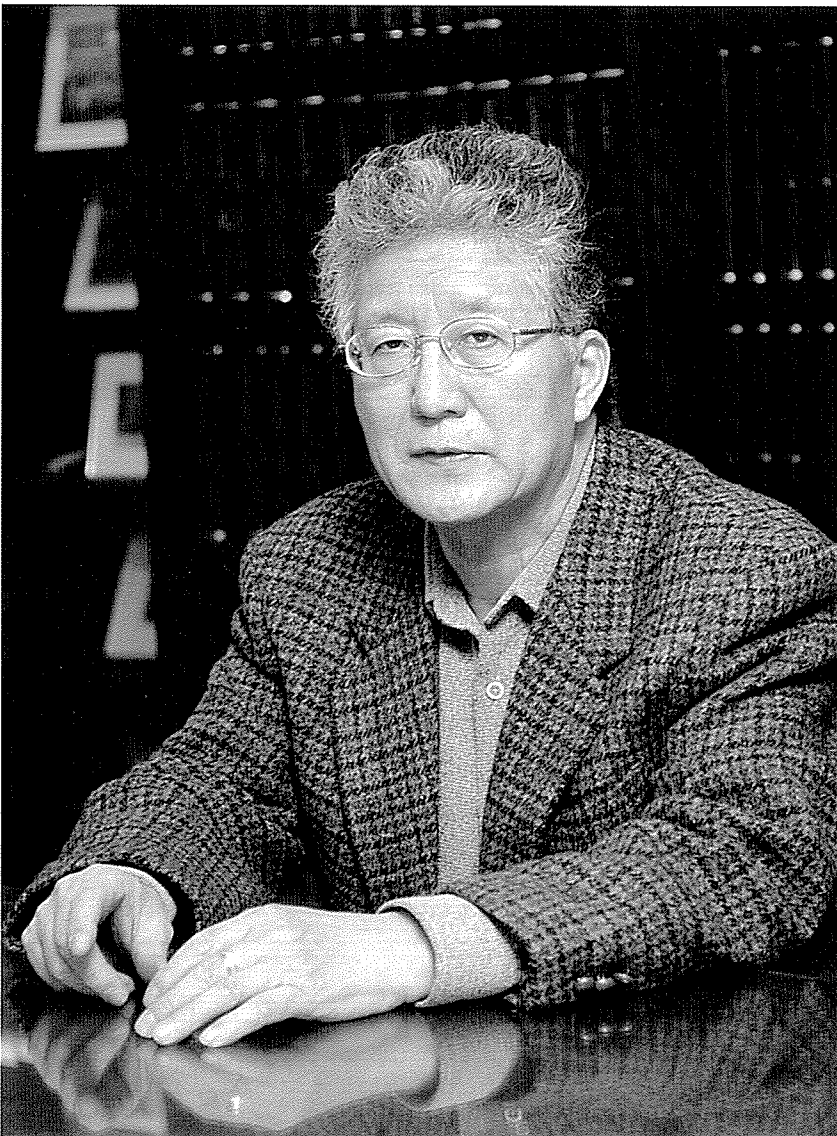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전 무식 회장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창립 주도 초대 회장으로 선임, 사무국도 한국에



■ 인터뷰 : 10월 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실

■ 바쁘신 중에도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초대 회장에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 연합회가 어떤 기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개국, 23개 한림원 참여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설립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민간협력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연합회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과학한림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21개국, 23개 과학한림원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는 내부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회원으로

지난 9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ssociation of Academies of Science in Asia : AASA) 창립 총회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무식(全武植·68세)원장이 임기 2년의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21개국, 23개 과학한림원이 참가한 이번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창립 총회에서는 수석 부회장 도브렛소브원장(러시아), 부회장 루드 아론원장(이스라엘), 사무총장 나지마 아코지나원장(카자흐스탄), 재무이사 박금식부원장 등 총 10명의 임원진도 확정하고 앞으로 AASA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 발전을 위한 구심체가 되기로 다짐했다. 러시아과학한림원의 도브렛소브원장과 함께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출범의 산파역을 담당해 왔으며,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전무식원장을 만나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의 창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가입할 예정입니다.

연합회는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회원 국가의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협력과 토론의 장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총회에서는 원장님께서 초대 회장에 선임되신 것을 비롯해 사무국도 한국에 두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 제가 초대 회장이 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영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시아 과학기술계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지역 과학기술계 단결을 위해 활발한 인력 교류, 정보 교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어 국가적 위상의 제고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

술 민간협력 활성화라는 의미있는 명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오셨지만 각 회원국의 사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회 창립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창립과정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8년부터 두차례 예비회담

▶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요. 초기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그 설립을 발의하여 러시아과학한림원 시베리아 분원장인 도브렛소브박사(N. Dobrersov)와 1998년 서울에서 만나 아시아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및 공동협력에 과학한림원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각 국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학한림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국 한림원장들은 세계적으로도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자들로서 그 자존심은 매우 높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이 주축이 되어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별

로 탐탁한 일이 아니었기에 설득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을 가져 그들을 설득했지요.

1999년에는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과학한림원 원장단이 서울에서 1차 설립 예비회담을 가졌으며,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 8개국의 과학한림원 원장단이 2차 설립 예비회담을 갖는 등 어려움 끝에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회원에서 제외됐는데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 일본은 한림원이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내부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외의 한림원이 없는 국가들은 준회원국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민간협력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합회 설립목적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펼쳐 나갈 계획인지요.

공동연구위한 기금 조성

▶ 그간 과학기술 발전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첨단 과학기술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구촌 경제사회도 대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60~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은 전 세계의 30%도 채 되지 못합니다.

학문적으로 노벨상 등 수상자 수도 극히 미미하구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혁명에 대한 나라간 과학기술교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합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체 구실을 담당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학문적 발전 뿐 아니라 과학 발전을 통한 인구와 수입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 연구를 위한 기금 조성은 물론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과 뉴스레터 발간 등 학제 및 국제 간의 과학기술발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국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자문 및 건의, 과학기술 연구조사, 연구결과 상업화 연구 및 조사, 과학자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공동 관심분야 심포지엄, 워크숍, 원탁토론회 등의 사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구요.

이미 차기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첨단 기술의 국가간 이전'으로 정해 놓고 행사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연합회가 앞으로 아시아 및 오

세아니아 지역의 과학기술 협력과 국가간 민간 외교의 장으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과 그에 따른 이점 등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물론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었고, 제가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우리의 활용도도 가장 높을 것이구요.

교류와 협력 속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의 취득은 물론 상호 협력의 진행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하리라 봅니다. 특히 선진 과학기술 국가인 러시아와의 협력 기회는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①7

송해성 <본지 객원기자>

P E O P L E

6각수 이론으로 물의 수수께끼 푼 세계적 석학 전무식회장이 걸어온 길

술회장은 물의 수수께끼를 푼 '물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 석좌교수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평생에 걸쳐 연구한 '물'에 관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물을 만물의 시초이며 우주의 원리로 파악했던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도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은 하나의 자원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이고, 그 이전에 생명현상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해 물에 대해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술회장은 '분자론적 물환경학설' 연구의 결정체인 6각수 이론을 통해, 6각수가 인간의 몸과 친화적이며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기능을 보완하여 에이즈나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술회장은 54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66년 미국 유타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미국 버지니아대, 한국과학원, 미국 유타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고, 미국 플로리다대 석학 초빙교수, 홍콩대 석좌교수 등도 역임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중국과학원 장춘연구소 객원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인도국립학술원 외국인 종신회원, 국회 과학기술 석학강좌 공동위원장, 한국 Nobel 과학상 수상 지원본부 대표 및 본부장, 러시아 과학한림원 외국인 종신회원 등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루이스 아카데미상' (Louise Academy), 과학상(대통령상), 이태규학술상 학술대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으며, '액체의 구조'(영문) 등 학술 논문 2백80여편을 저술했다.